

4장 속죄제 (1)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사이다. 그런데 속죄의 규례는 죄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데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향단에 피를 바르는 경우(4:2-21),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경우(4:22-35), 속죄제를 드려야 할 다른 경우들(5:1-6)과 가난한 자의 속죄제(5:7-13)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속죄제 (4:1-2)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경우에 드린다.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 드리도록 규정하였다.

2.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속죄제 (4:3-21)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서서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는 경우는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와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이다.

첫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면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다(4:3-12).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피는 세 가지로 처리를 하는데, 먼저 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향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성막의 번제단 밑에 쏟았다. 동물의 피를 세 가지로 처리함으로써 죄에 대한 속죄를 강조하였다.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에서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살랐고, 그 고기와 가죽과 내장과 똥은 진 바깥 재를 버리는 곳에서 불로 사르게 하였다. 기름과 콩팥을 불로 사르는 점에서는 화목제와 비슷하지만, 그 고기를 먹지 않았고 내장이나 똥과 함께 진 바깥에서 모두 태우게 하였다.

둘째,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이다(4:13-21).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되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잡았으며, 제사장이 세 단계로 피를 처리하고 기름을 번제단 위에 불사른 후에 나머지는 진 바깥에서 모두 태웠다.

3.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속죄제 (4:22-35)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경우도 예물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족장이 죄를 범한 경우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드렸다(4:22-26). 족장이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잡으면 제사장이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다. 그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처럼 단 위에서 불살랐고,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할 때에 그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

둘째, 평민이 속죄를 하면서 암염소를 드렸고(4:27-31), 셋째, 평민이 어린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도 하였다(4:32-35). 암염소나 어린양에게 안수하고 잡은 후에 제사장이 그 피를 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밑에 뿌리고 기름은 단 위에서 불살랐다.

묵상과 실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

속죄제에 관한 4장의 교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지중’(4:13, 22, 27)이라는 말이다. 2절에서 ‘그릇’ 범하였다는 말도 ‘부지중’과 같은 단어이다. 제사장의 죄(4:2), 이스라엘 회중의 죄(4:13), 족장의 죄(4:22), 평민의 죄(4:27)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지목한다. 지금 속죄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친다. 달리 말하면, 고의로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고 모르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 그 죄를 속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민수기 15:22-31에서도 ‘부지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를 구분하여 가르치면서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속죄의 길이 있으나 고의로 어긴 것에 관하여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하였다.

속죄제에서 모르고 지은 죄를 다룬다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고도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는 식의 '값싼 은혜'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한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죄를 더 깨달아가면서 새로 깨달은 죄를 더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속죄제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제사장의 죄이다. 직분자의 죄는 온 회중의 죄와 상응하는 것이다.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더라도 거룩하신 여호와께 나아갈 때에 부지중의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봉사하는 것이다. 지금도 교회의 직분자는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동시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듯이 교회 전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야 한다.

속죄제에 관한 규정에서 죄의 경중도 함께 다룬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는 소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속죄소의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도 발랐고 나머지는 번제단의 아래에 부었다. 족장이나 개인의 죄는 흠 없는 수염소나 양염소를 드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단 아래에 부었다. 모든 죄가 죽음에 해당하지만 죄에도 경중이 있다는 사실은 직분자들이 더 조심하도록 한다(참조 약 3:1). 계속하여 부지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서 나아올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 회중에게 임하게 된다.

속죄제의 핵심은 대속죄일의 규례에 잘 나타난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성소까지 들어갔지만,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 부지중에 지은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의식하던 것보다 더 깊고 심각한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로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을 준비해 두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부지중의 죄뿐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일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식이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우리는 매일 부지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

4장 익힘 문제

1. 속죄제는 어느 경우에 드렸습니까? (1, 2절)
2.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것입니다.
 - 1) 속죄 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3절)
 - 2) 그 제물의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어디에 뿌리고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6, 7절)
 - 3) 나머지 피는 어디에 쏟으라고 하셨습니까? (7절)
 - 4) 기름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8-10절)
3.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것입니다.
 - 1) 속죄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14절)
 - 2) 누가 제물에 안수합니까? (15절)
 - 3) 그 제물의 피를 회막안에 있는 어디에 뿌리고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17, 18절)
 - 4) 나머지 피는 어디에 쏟으라고 하셨습니까? (18절)
 - 5) 기름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9절)
4. 이스라엘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것입니다.
 - 1) 속죄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23절)
 - 2) 누가 제물에 안수합니까? (24절)
 - 3) 그 희생제물의 피는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25절)
 - 4) 나머지 피는 어디에 쏟으라고 하셨습니까? (25절)

- 5) 기름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26절)
- 5, 평민이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것입니다.
- 1) 속죄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28절)
 - 2) 누가 제물에 안수합니까? (29절)
 - 3) 그 희생제물의 피는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30절)
 - 4) 나머지 피는 어디에 쏟으라고 하셨습니까? (30절)
 - 5) 기름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31절)